

투데이 칼럼

### 새만금 '에너지 데드밸리' 못잡으면 또 희망고문... 대안은 '부유식 발전(FSRP)'

**현** 대차그룹의 9조원 새만금 투자. 이는 전북 경제 부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대형 호재이다. 하지만 환호 뒤에는 병혹한 진실이 숨어 있는데 이는 바로 '전기 에너지 데드밸리(Electric Energy Dead Valley)'라는 현실이다. 현대차의 핵심 시설이 완공될 2027년과 한국전력의 육상 전력망이 확충될 2032년 사이, 5년이라는 치명적인 전력 공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 장 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우리는 빠이론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2011년 삼성그룹은 새만금에 7조 6천억원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 상황의 변화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즉시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특히 '에너지 불확실성'을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삼성이 명분이 없어 떠났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차가 전기기가 없어 새만금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아닐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든타임을 메워야 할 행정이 과거와 현재의 정쟁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수도'로 선포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즉 전기를 보낼 송전망 구축을 방치했다. 그 결과 3GW 규모의 거창한 계획 중 실행된 것은 고작 10% 수준인 육상 태양광뿐이며, 핵심인 수송 태양광과 해상 풍력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또한 흑독했다. 군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행정의 병자'가 생겼고, 기업의 투자 적기까지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재생에너지 수도의 품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제는 현실적인 인프라를 고민해야 한다. 그 해답은 '속도감 있는 전력 공급'과 '무탄소 전기 공급의 완성'이라는 속도전을 위한 두트랙 전략이다. 첫째, 속도전의 핵심은 부유식 LNG 발전선(FSRP)의 조기 배치이다. 전력의 해상 유희로를 열어야

한다. 육상 발전소 건설에 10년이 걸린다면, FSRP는 건조 후 해상 정박만으로 24개월 내에 1.5GW 이상의 기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27년 현대차 공장이 가동되는 그 날, 전력 부족으로 라인이 멈추는 비극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다. 둘째, 무탄소 에너지의 완성이다. 가까운 미래에 완성될 새만금의 수태양광(2.1GW)과 전북 해상풍력(2.4GW)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재생에너지의 이러한 간헐성을 '부유식 SMR(소형 모듈 원자로)'로 해결해야 한다. 부유식 SMR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강력한 '기저 부하(Base Load)'이자 '에너지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원전'이라면, SMR은 이를 안정화해서 산업 현장에 24시간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경제성에서도 압도적이다. 특히 SMR의 고온 폐열을

담모니아 크래킹 공정에 투입하면, 수소 생산 원가를 30% 이상 낮출 수 있다. 또한 서해 지반에 최적화된 '석션 버킷(Suction Bucket)' 공법을 표준화하면 시공 속도를 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석션버킷 공법은 투명하고 확고한 기술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나리오의 무대는 군산조선소여야 한다는 점이다. 4.5GW 규모의 거대 재생에너지 시장과 이를 안정화할 부유식 발전 설비라는 압도적인 '비전'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군산조선소의 도크는 자연스럽게 부유식 SMR과 LNG발전 선박을 건조하는 미래 에너지 선박 기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새만금과 전북지역의 즉각적인 경기활성화가 함께 도모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상상할 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이 '로봇수소 추진본부'를 신설하며 지인 의지를 보였다. 오는 5월 발표될 범정부 종합지원계획은 반드시 과거 삼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실행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5년의 전력 공백을 방지해 9조 원의 기회를 날릴 것인가, 아니면 부유식 에너지 허브 구축으로 에너지 패권을 거머쥘 것인가. 정부의 대담한 결단을 촉구한다.

독자재언

### “봄철 산불 예방, 당신의 사소한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순위별 산불발생 원인 1순위가 입산자실화, 2순위가 논·밭두렁소각, 3순위가 쓰레기소각이다. 이같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하는 산불이다.

산불은 단순히 산림을 태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남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 불길은 순식간에 확산되어 진화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한 순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자산인 산림이 사라지고 지역사회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삼가야 하며, 담배꽂이를 무심코 산 바닥에 버리는 행동 역시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주기적 순찰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책임 있는 행동이다. 산불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재난이며, 사소한 행동이 큰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산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공동의 자산이다.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사소한 주의와 관심을 가진다면 소중한 공동의 자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다. 이만규 순창경찰 경비정보안보과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서학동 사진미술관의 작은 그림전

전주시 서학동 사진미술관 기획 작은 그림전이 열렸다. 진심모음전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전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렸다. 서학동사진미술관 이일순 대표가 그간 수집한 자신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늘 훌쩍한 주머니지만, 눈과 마음은 늘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전시장에서 작가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라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을 데려와 기쁨과 설렘, 잔잔한 행복을 작품과 함께 누리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 중 3점은 선물로 받은 것이어서, 그 마음을 나눠준 작가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도 담았다. 이일순 대표는 “작품의 제목과 제작 연도를 정리하다 보면 그때

의 내 시간들이 함께 떠오르고, 붓을 들고 있었을 작가의 시간과 마음도 조심스레 헤아려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점의 그림은 그렇게 누군가의 삶과 나의 시간이 만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그림 앞에 한 발짝 다가서 작품이 건네는 슬픔과 온기를 느끼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안에 스며 있는 이야기를 발견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일순 대표는 “혹시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소장 목록에는 김영란, 김수진, 김수하, 김춘선, 김하운, 박라라, 박현진, 유대수, 이기림, 이승진, 이은경, 이적요, 이진, 정미연, 정미경, चे지호, 최희, 한숙 작가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

#### 악화되는 미국 내 여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이 알팔로 끝 모를 전쟁에 제 발로 들어서서 약수리는 지적이 나온 다. 게다가 이란이 선제공격을 준비한 정황이 없었다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란은 최정에 부대,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상군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9위권인 현역병 61만 명에 민병대와 같은 준 군사 조직이 35만 명이다. 이 중 바시지 민병대는 전시 동원하면 수백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무기를 극도로 잔혹하게 사용해왔다. 수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를 살해했다. 이란은 협조한 산악을 끼고 있는

요새화된 지형을 갖고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은 끝없이 인명과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전쟁의 늪'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준비 중이었다는 정황은 없었다는 미 정보당국의 비공개 브리핑 내용까지 전해졌다. 전쟁은 점점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몰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CNN 여론조사에는 미국인의 60%가 지상군 파병에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고 59%가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60%가 대통령에게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하락세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개전 직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